



2017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이용자 이용수기

- 최우수상** 08 자연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아이
부산 동래종합사회복지관 _ 오영숙
- 우수상** 16 축복으로 다가온 고마운 인연!
충남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박현정
- 22 가족의 의미를 넘어 배움의 원천이 된 아이돌봄서비스
경남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_ 신세니
- 28 새로운 출발! 좌충우돌 삼남매
전북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_ 김미진
- 장려상** 36 무지개 우리집
인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_ 신영실
- 41 아름다운 인연
전남 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박지선
- 47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온 큰 선물입니다
전북 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왕연홍
- 51 내 삶의 등불이 되어준 아이돌봄
경기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김민주
- 56 경단녀 이야기
경북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_ 전정연
- 61 주연이의 든든한 수호천사
광주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조설아

내 생애 최고의 선택



아이돌보미 활동수기

- 최우수상** 72 빨간 단풍잎
인천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한미자
- 우수상** 78 좌충우돌 돌봄이야기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_ 차영희
- 82 매일 아침 2시간: 골든타임
전남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김옥식
- 장려상** 88 나의 고향은 평양입니다
강원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이희숙
- 92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이유
서울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_ 이영애



2017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이 용 자 이 용 수 기



최우수상

08 자연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아이

부산 동래종합사회복지관 _ 오영숙

우수상

16 축복으로 다가온 고마운 인연!

충남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박현정

22 가족의 의미를 넘어 배움의 원천이 된 아이돌봄서비스

경남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_ 신세니

28 새로운 출발! 좌충우돌 삼남매

전북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_ 김미진

장려상

36 무지개 우리집

인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_ 신영실

41 아름다운 인연

전남 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박지선

47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온 큰 선물입니다

전북 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왕연홍

51 내 삶의 등불이 되어준 아이돌봄

경기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김민주

56 경단녀 이야기

경북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_ 전정연

61 주연이의 든든한 수호천사

광주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조설아

2017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자연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나의 생각과 같은 '아이돌봄 철학'을 가진

이런 분을 만나게 되다니...

우리아이들은 지금 너무 행복해한다.

자연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아이

부산 동래종합사회복지관 _ 오영숙

최우수상

자연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아이

부산 동래종합사회복지관 _ 오영숙



우리 집은 맛벌이에, 월말 부부이다. 아빠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내려오고, 아이들과 나는 부산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며 분주하게 살고 있다. 이런 이산가족 생활을 한 지도 벌써 3년째이다.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등교 준비와 내 출근 준비를 하고 7시 반에 출근하여 저녁 7시에 귀가, 그리고 아이들 뒤통다꺼리..... 정말 하루가 어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저물곤 한다. 쏘 화살보다, KTX보다, 비행기보다 더 빨리 시간은 돌아가고 피로는 더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서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 지난해

부터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서비스에 대해 의구심으로 가득했었다. 타인을 집으로 들인다는 부담감과 심심하면 한 번씩 터지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학대 사건, 조선족 돌보미가 아이를 유괴했다는 풍문 등 걱정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첫째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돌봐주시던 분이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분리불안’을 일으켜 고생했던 터라 사람을 들인다는 것은 내게 무척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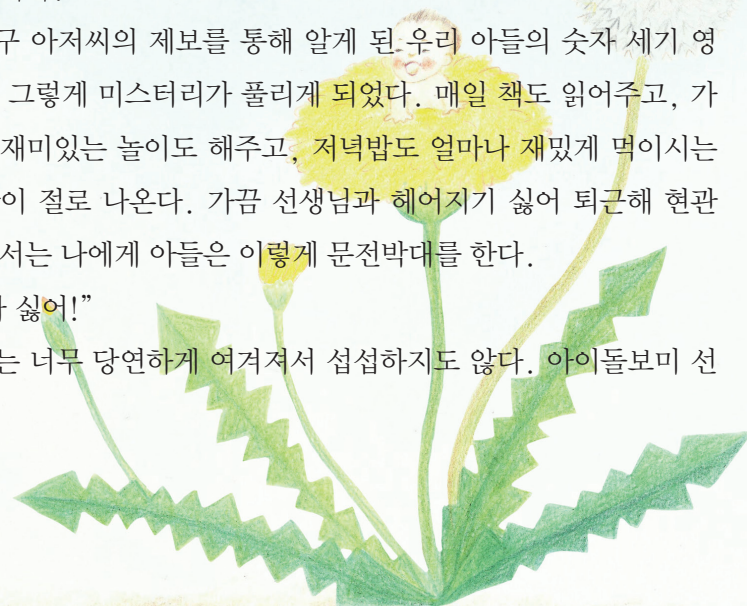
하지만,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만난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첫날부터 이미 그것은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다. 10살짜리 딸아이와 4살짜리 아들이 어찌나 선생님을 잘 따르고 좋아하는지 아파트 내 상가의 문방구 아저씨도 궁금해 할 정도였다.

“애들 데리고 다니시는 그 분이 누구세요? 친할머니도 그리는 못 하겠다. 문방구 와서 변신 자동차 이름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다. 하나, 둘, 셋 하고 숫자 세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맨날 와서 그러고 갑니다.”

문방구 아저씨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우리 아들의 숫자 세기 영재 설은 그렇게 미스터리가 풀리게 되었다. 매일 책도 읽어주고, 가지가지 재미있는 놀이도 해주고, 저녁밥도 얼마나 재밌게 먹이시는지 감탄이 절로 나온다. 가끔 선생님과 헤어지기 싫어 퇴근해 현관을 들어서서는 나에게 아들은 이렇게 문전박대를 한다.

“엄마 싫어!”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섭섭하지도 않다. 아이돌보미 선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고 가장 크게 변한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졌다는 것이다. 아침 일찍 나갔다 저녁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피곤에 절어 늘어져 있느라 산책을 하거나, 나들이를 가는 일이 적었던 우리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는 항상 아파트 단지를 같이 걸으며 이렇게 일러주신다.

“오늘은 비가 오네! 지렁이가 나왔을 거야. 우리 같이 찾아보자!”

“나무에 싹이 트고 있어, 나뭇잎이 연두색으로 빠져죽이 고개를 내밀고 있네. 드디어 봄이 오나봐!”

“봄바람이 달콤하게 불어오니 나비들이 팔랑팔랑 날아왔어.”

“이건 노랑나비, 이건 호랑나비야.”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 나무들이 화가 났나봐.”

“가을이 왔나봐. 나뭇잎이 옷을 갈아입었어. 단풍나무는 빨간 옷, 매미가 많았던 벚나무는 주황 옷, 냄새나는 은행나무는 예쁜 노란색 옷을 입었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지나치는 모든 풍경에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고, 내 발 밑에서 움직이는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책장에 소품처럼 꽂혀 있던 그림책을 꺼내서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는다. 책 속에 나오는 동물, 식물을 보며 “이거 우리 봤는데.”라며 반가워하고, 엄마에게도 재잘재잘 설명을 한다. 이른 사춘기가 와서 엄마에게 통 말을 앓던 10살 딸아이도 선생

님과 산책길에 보았던 현상들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 두루뭉술하게 “놀러가요.”가 아닌, “돌보미 선생님이랑 오늘 산책하다가 화단에 싹트는 걸 봤는데, 우리도 씨앗 심어서 싹트는 거 관찰하면 안 돼요?”, “돌보미 선생님이랑 바다생물 책을 봤는데, 아쿠아리움에 가서 보고 싶어요.”라며 구체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또 4살 아들이 선생님이랑 곤충사전과 해양백과사전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틈만 나면 엄마에게 지식 자랑을 한다.

“엄마, 불가사리는 바다에 사는데, 팔이 끊어지면 다시 자라요. 신기하죠?”

“엄마, 지렁이는 비가 오면 숨이 막혀서 땅 위로 올라오는데, 오늘 비가 와서 지렁이가 땅으로 기어 나왔어. 징그러워.”

“엄마, 거미는 거미줄을 만들어서 곤충을 잡아먹어요. 난 거미 싫어. 무서워. 근데 타란툴라도 거미야. 커다란 거미야.”

그리고 가끔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논리를 펴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나무가 화가 나서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많이 불면 지진이 나고, 지진이 나면 위험해서! @#%&****!”

아이들이 자연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냥 스쳐지나갈 수 있는 동물과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 궁금한 점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등살에 못 이겨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서 주말 텃밭을 가꾸기도 시작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서 자라는 걸 살피고, 가뭄이 들면 시든 줄기를 보며 마음 아파하며 물을 길어 나르

고, 흙 속에서 튀어 나오는 땅강아지, 집게벌레들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고 친구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해줄 수 없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우리아이들은 곤충잡기 삼매경에 빠졌다. 매미를 잡아와서 아파트 베란다에 모셔둔 탓에 새벽에 매미소리에 놀라 잠을 설치기도 하고, 민달팽이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운다고 곤충 채집망에 집어넣었는데 밤새 채집망 숨구멍으로 도망을 가버려서 며칠 동안 추적해서 말라 죽은 사체를 수습하여 아파트 화단에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공벌레를 잡아다가 집에 풀어놔서 밤새 공벌레가 온몸을 기어 다니는 공포에 떨어보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재미있는 추억이다.

전생에 내가 나라는 아니라도 성(城) 하나 정도는 구하긴 했나 보다. 자연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내 생각과 같은 ‘아이돌봄 철학’을 가진 이런 분을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너무도 행복해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나보다 만족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나는 학부모들에게서



학교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속상하다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여러 곳이 있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학교 돌봄교실 입급을 선호한다.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해보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나의 사례를 상세히 말씀드리면서 내가 가졌던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상쇄시켜드리고자 노력한다.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음을 같은 처지의 부모님들께 일깨워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 돌봄에 있어서나 나의 직장생활에 있어서나 우리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아이돌봄서비스’, 특히 ‘김혜숙 돌보미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우수상

2017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별난 아이들을 특별난 아이들로 봐 주신 그 마음,
영원히 마음속에 새기며 지금껏
그 별난 아이들을 거둬주심으로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복으로 다가온 고마운 인연!

충남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박현정

가족의 의미를 넘어

배움의 원천이 된 아이돌봄서비스

경남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_ 신세니

새로운 출발! 좌충우돌 삼남매

전북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_ 김미진

우수상

축복으로 다가온 고마운 인연!

충남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박현정

때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겨울에 아이아빠의 갑작스런 장기실직으로 나는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아이들이 네 살과 두 살로 한참 손이 가야 할 시기였다. 30대 후반에 시작한 늦깎이 결혼생활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면 되리라 생각했던 모든 꿈은 날아가 버리고 생업에 뛰어들게 된 내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했지만 뉘 놓고 있을 수만 없었다. 내 아이들을 잘 키우리라 마음먹고 파트타임도 없는 시골여건 상 쉬는 날이 한 달에 3번, 주말에는 출근을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잠시 할머니가 돌봐주시게 되었다.

해가 바뀌고 아이아빠가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어려운 먼 곳으로 직장을 잡게 되었다. 그 즈음에 둘째 아이는 큰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에 보내게 되었다. 엄마인 내가 출퇴근 시에도 별문제가 없었고 생각보다 순하다고 여겼던 녀석인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일상은 정말 엉망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출근할 때마다 안 떨어지려고 떠나가라 울어대고, 그 때 시작한 울음이 먹을 때만 빼고 3시 하원 때까지 지속되었다. 아이는 목이 쉬어버리고 아이가 한 선생님에게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떠나가라고 울고 장난감을 쥐도 잠시 뿐, 먹을 것 앞에서도 그 순간만 울음을 그치고, 선생님들도 정말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처음엔 적응기간이 늦은 아이들은 2개월 정도라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여러 사람이 고생이니 어떡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 기간이 2개월을 지나버리게 되고 선생님들도 너무 우는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고 아이 친구들이 귀 아프다고 하는 피해의 외침, 너무 고생을 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결국 등원을 포기해야겠다는 상의를 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엄마와의 애착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 살이 더 먹어도 똑같은 적응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냥 적응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원장선생님이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경우이고 서울에 아이 심리전문가에게 상담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착잡해졌다.

원에 보내고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나 싶어서 가보면 여전히 떠나가는 울음소리,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일터로 갈 때의 무너지는 가슴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싶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다. 퇴근 후에는 아이가 꿈쩍도 못하게 하고 정말 우리아이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 등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침

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현실을 원망도 해봤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더 많이 보듬어주고 바라봐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어느 날, 시내버스에 붙어 있는 아이 돌봄서비스 광고를 보게 되었다. ‘저런 것은 나에게 해당이 없겠지, 정말로 그런 제도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저런 도움을 주는 제도가 내게 닿는다면 좋겠단 생각을 했다. 지금처럼 인터넷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때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해줄지 걱정도 되었지만 밀려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서류를 작성했다. 그리고 버스로 30분 거리에 10시부터 6시까지 주 5일 근무가 되는 곳에 출근하기 시작한 후에 아이들이 적응해 주기를 바라며 돌봄을 신청했다. 모래성을 쌓는 심정으로...

사실은 엄청 걱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까칠함이 장난이 아닌 걸 알기 때문이었다. 자라면서 화분에 있는 화초 한 번 건드리는 법은 없으나 자기가 갔던 병원, 미용실, 빵집, 마트 등 익숙한 것 이외에는 다 거부하고 집 주변의 가본 곳 이외에는 모두 거부하는 아주 다루기 어렵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으니 말이다. 그런 걱정을 안고 며칠 후, 돌봄 배정을 받으신 선생님은 사전에 미리 방문을 하셨고 연세가 있으시고 첫인상이 좋아서 기뻐했으나 아이들을 겪어보고 당장 안 하신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드디어 선생님과 아이들의 첫 미팅!

어린이집 하원 때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한테 매달려 낯선 돌보미 선생님께 안 가려고 떠나가라고 울고 간신히 엄마에게 가자고 달려어 선생님 차에 태우려고 하니 안타려고 해서 차는 그냥 두고, 걸음이 불안해서 손을 잡고 걸으려 하니 손을 뿌리치고, 안지도 못하게 하고 가다가 주저앉아서 울고 떼쓰고 도로에서 30여 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어린이집과 집과의 거리는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인데 얼마나 씨름을 했을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뵈었다. 길거리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누가 보면 애를 꼬집어 뜯어서 쥐어짜듯이 우는 형국이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쳐다보고 애는 안 따라주고 울었을 테니,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다.

그렇게 밀고 당기고 울고불고 날마다 거리에서 씨름을 하고 일주일 이 지난 즈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벌어지는 울음전쟁이 일주일 만에 평정되는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친할머니 대하듯이 살갑게 하고 아침에 어린이집에서 등원시의 헤어짐이 웃음으로 변하고 원에서 낮잠도 늘기 시작하고 고성의 횃수나 기간도 줄기 시작하고 아이가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어린이집에서도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고 퇴근 후의 얼음뎡을 주문하던 행동도 돌보미 선생님과 아이들이 지낸 얘기를 나눌 때도 매달림이 줄기 시작했다. 그렇게 돌보미 선생님과 인연으로 5개월 동안의 기나긴 전쟁은 사라져가고 평화가 오기 시작했다. 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진심과 그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 해결된 것이다. 돌보미 선생님의 승리다.

세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니, 아이의 마음에서 볼 때 어느 날 아

빠가 떠났고 또 어느 날 할머니가 떠나버렸던 상황이 충격이었으며 언젠가는 엄마도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한 예민해진 행동들이 나왔고 엄마 힘만으로는 부족했던 차에 자신만을 바라봐주던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어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음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아이들의 성향이 한 순간에 다 바뀌진 않는다. 아이들이 워낙 별나서 큰 녀석은 눈물을 닦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손수건으로 닦아야 하고 손수건이 없어서 휴지로 닦았다가는 떠나가라고 울어대어 정신줄을 쏙 빼놓았다. 둘째는 눈물을 닦을 때 반드시 휴지로 닦아야지 다른 걸로 닦았을 때에 눈을 감고 울기 시작하면 기본이 30분이고 닭똥 같은 눈물로 옷이 다 젖어버리고 한번 뽀이 나면 장난감이나 먹을 거로는 대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

그런 별나도 너무 별난 아이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부탁드렸으니 얼마나 애를 태우고 힘드셨을까 싶다. 그런데도 싫은 내색 않고 아이들이 개성이 강한 거라 하시며 너무 예쁘다고 해주고 아이들이 짜증을 부리는 정도가 심하면 당신 차에 태우고 바람도 쐬어주고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집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놀게 하고 날이 갸름해져도 자기가 집에 가자고 해야 하는 녀석들임에도 그 비위를 다 맞춰주었다.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봄에 연산홍 꽃 필 때에 세 발 자전거 타던 모습, 가을에 단풍 들었을 때 놀던 모습, 학교운동장에서 놀던 모습, 겨울에 눈사람 만들던 모습 등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고 부모가 해야 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어 더욱 감사했다. 때로는 두 녀석 모두 데리고 찜질방으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쉽지 않은 살뜰한 보살핌들이 지방에 근무하는 아이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도 남았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어려웠던 시기에 돌보미 선생님이 남편이 되어 아이들을 같이 키워주었고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친절 엄마처럼 다 받아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감사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데리러 오면 좋아라 소리소리 지르고 저녁에 가실 때면 가지 못하게 매달리기도 하고, 가시는 모습을 배란다에서 선생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선생님'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돌보미 선생님이 양가할머니보다 1순위가 되었다. 그 때 그 시절, 아이돌보미를 통한 선생님과 인연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족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까칠한 두 아이를 같이 키워주신 친절어머니 같은 돌보미 선생님! 별난 아이들을 특별난 아이들로 봐주신 그 마음, 영원히 마음속에 새기며 지금껏 그 별난 아이들을 거뒀주심으로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축복으로 다가온 고마운 인연! 돌보미 선생님 사랑합니다!

우수상

가족의 의미를 넘어 배움의 원천이 된 아이돌봄서비스

경남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_ 신세니

우리 가족과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과의 인연은 4년 전, 나의 이직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주말부부 생활을 하며 오랜 준비 끝에 나는 대학에 자리를 잡게 되어 창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기쁨도 잠시 돌도 되지 않은 둘째의 양육자를 찾는 문제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평생 홀로 생계를 부양하셨던 친정어머니는 정년퇴직 후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시어머니 또한 직장생활 중이셨기에, 내 생각만 하며 타지에 계신 두 분 중 누군가에게 의지할 순 없었다.

이런 나를 안타깝게 여긴 오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겠노라 제 안했고, 결국 나는 직장과 한 시간 거리의 오빠네 근처로 이사를 하며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 달 남짓 후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늘 퇴근이 늦었던 나로 인해 오빠네 식구들도 힘들어 했고, 결국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며 어렵게 고백하는 새언니 얘길 들었을 때 솔직히 배신감마저 들었던 게 사실이다. 가족들 간 상처가 끓기 전에 대신 아이들을 돌봐줄 분을 찾아보겠다고 큰 소리 치긴 했지만, 아는 이 하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몰래 우는 일뿐이었다.

그러다가 학교 선배와 연락이 닿았는데, 이전에 자신의 아이를 키워주신 아이돌보미 분이 너무 좋았으며,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기관에 연락해 보라는 얘기에 헛고생이라도 해 보자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마침 집 근처에 사시는 돌보미 선생님이 계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튿날 바로 만나 그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만 드리며 인연의 첫 단추를 꿰었다. 그렇게 만난 첫 돌보미 선생님은 나의 사연을 무척 안타까워하면서 두 아이를 살뜰히 챙겨주었다.

모유 외에 다른 건 입에 안 대던 둘째아이는 선생님의 보살핌 속에 밥을 먹고 살이 차 가며 첫 돌을 맞이했고, 유치원에서 하원해 와도 집에 누군가가 있어 좋다는 첫째도 많이 웃고 종알대는 아이로 자라갔다. 초임기 자리를 잡기 위해 바쁜 동안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건강히 자라주었기에, 이사 후 5킬로그램이나 살이 빠질 정도로 힘들었던 나도 차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돌보미 선생님께서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무거운 고민이었던 아이양육을, 때론 언니처럼 가장 가까워서 도맡아 주었던 선생님과 이별이 아쉽고 또 이런 좋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오던 날 평평 울던 나를 따라 선생님도 우시던 그 날의 풍경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이후 두 번째 선생님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별 다른 말이나 자신을 드러냄 없이 아이를 잘 맡아 돌보겠다고 겸손히 말씀하시던 얼굴에서 책임감이 엿보였다. 나 또한 공백 없이 아이를 맡아줄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결혼 후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딸의 어머니기도 한 이 분은 정말 친손자처럼 둘째아이를 키워주었고, 주말부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매일매일 버티듯 살아가는 나를 “잘하고 있다.”, “대견하다.” 늘 칭찬으로 세워주고 위로해 주는 따뜻한 분이었다. 그 덕에 둘째 아이는 돌보미 선생님이 바뀐 환경에도 전혀 문제없이 두 돌을 맞이하며 자라던 중, 우리가족은 전혀 바라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며 살겠다 싶었던 우리 가족에게 셋째라는 선물이 찾아온 것이었다. 둘째도 겨우, 오로지 선생님들의 수고에 나의 노력을 보태어 키웠는데, 변함없이 주말부부로 지내며 아등바등하며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셋째라니, 이런 가당치도 않은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생기나 싶었다. 남들은 내게 삼대가 덕을 쌓아야만 가능한 주말부부로 살고 있지 않느냐며,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이 주어지냐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이 절망스럽기까지 했던 나는, 그 시기가 삼대가 쌓은 덕이 아니라 오히려 삼대가 쌓아 한꺼번에 내려 주는 저주와 같이 느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도 참 감사한 기억은, 선생님은 내가 피곤해서 그러나 보라며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선생님 댁에 아이를 데려가셔서 돌봐주시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께서 외손주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탓에, 괜히 죄송스러워 임신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몇 달을 보내다가 어렵게 입을 떼었을 때에도, 선생님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며 또 걱정해 주셨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직장에선 보직을 맡아 3개월의 출산휴가 외에 휴직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여전히 양가 어른들께는 도움을 청할 수 없어 애태우던 어느 날,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내 주었다.

“은성이 엄마, 우리가 키웁시다. 지금처럼, 우리가 키워야지, 엄마가 도맡아 키우는 것처럼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키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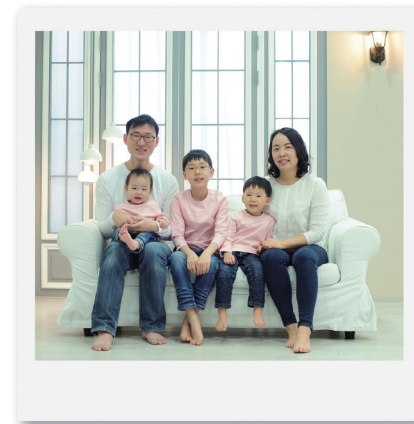
도저히, 나 스스로는 내뱉지 못했던,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되뇌었던 말을, 마치 알고 계시기라도 한 듯 먼저 건네신 말씀에 나는 또 울어버리고 말았다.



사실 나는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의 교수이다. 학생들에게 영유아와 양육자 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생애 초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 양육자의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고백컨대 책 속 이론대로 내 강의 내용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로서의 죄책감과 미안함을 늘 품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엄마이기도 하다. 어쩌면, 그 중요성과 책임감을 잘 알기에 누군가에게 쉽게 내 아이를 맡기지 못해 힘에 부쳐도 아등바등 해왔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젠 돌보미 선생님들께 의미 있는 지혜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며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힘 있게, 엄마를 대신하는 존재로서가 아닌 엄마와 함께 세상을 믿을 만한 곳으로 안내해 주는 또 다른 가족인 대리양육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의 보육지원제도와 정책의 방향이 갖는 무게감에 대해 내가 만나는 예비·현직 보육교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된다. 만약 내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았다면 십 수년 간 전공 공부에도 체감하지 못했을 부분들을 온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아이

돌봄서비스는 내게 큰 가르침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지금, 4개월 때부터 돌보미 선생님께서 돌봐주신 셋째도 누구보다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다. 둘째아이처럼 선생님 손을 거치며 걸음마를 시작해 첫 돌을 맞이했고, 이제는 집에 돌아 온 나를 반겨 뛰어온다. 그리고 머잖아 엄마보다 더 든든한 방패막이이자 휴식처인 선생님이 더 좋다며 퇴근하는 선생님이 못 가시도록 현관문 앞을 막아서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웃으며 선생님께 오늘도 감사하다 인사드릴 것이다. 우리아이들에



게 돌보미 선생님은 종일 맨살을 부비며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친밀한 존재이자 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두 동생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며 자란 초·중·고·대학 첫째 또한 ‘가족’단원 시간에 돌보미 선생님을 우리가족으로 소개했다는 사실은, 이 분들의 존재가 어떤 의미 인지를 잘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4년 간, 이렇게 귀한 인연이 닿고 닿아 이어지고 또 이어진 덕에 나는 세 아이를 키우는 열혈 직장맘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 아이도 키우기 힘든 시대에 혈연의 도움 없이 세 아이를 함께 키워준 아이돌보미 선생님! 단언컨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그간 모르게 ‘삼대에 삼대의 덕을 쌓아 얻은 또 하나의 가족’이 분명하고, 아이돌봄서비스는 내게 끊임없는 배움의 원천이 되어 오늘도 우리아이들과 나를 자라게 해주고 있다.

우수상

새로운 출발!
좌충우돌 삼남매

전북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_ 김미진

나는 한부모가족의 엄마이다. 아이들은 모두 3명으로 일곱 살 아들 쌍둥이와 네 살 딸을 두고 있는데, 첫째아이는 자폐2급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 경상도에서 평생을 살다가 전라도로 시집을 왔고, 작년 여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뒤 군산에 있는 쉼터로 오게 되면서 군산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결혼 생활 내내 독박육아를 감당해야 했기에 혼자가 된 뒤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거나 부담이 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젠 생계까지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 공백을 채워야 했기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일을 했던 탓에 양육 공백을 메울 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두는 선택들을 여러 번 하게

되었다. 그러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째아이는 장애아돌봄서비스를 둘째와 셋째 아이는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익숙한 내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집 정리를 하고 재우고... 퇴근 후에도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뒤에는 돌보미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녁도 먹여주고, 책도 읽어주면서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줄여주어 효율적으로 저녁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부분들까지 채워지게 되었다.

나는 아침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여 집으로 간다. 늘 집과 회사를 오고 가는 게 일상이었고, 내 개인 시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내게 활력을 가져다 주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약속이 없지만 휴식이 필요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할 기회도 가진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있는 직장동료들과의 요가 수업에도 참석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기도 한다. 만약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면 난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개인생활 역시 꿈도 못 꿔를 것이다.

가끔씩이긴 하지만 집을 비우게 되면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늘 있었다. 그런데 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무 잘 해주시는 바

람에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하려고 기다렸던 주말에 엄마 대신 선생님께서 오신다는 말에 오히려 더 반가워하기도 한다.

“애들아, 미안한데 엄마가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엄마 대신 돌보미 선생님께서 오실 거야. 대신에 다녀와서 다음날 엄마랑 더 신나게 놀자. 미안해.”

나의 미안함에 돌아온 대답은 이렇다.

“와! 돌보미 선생님 오신다. 왓싸!”

이럴 땐 서운해 해야 하는지, 다행이라고 안도해야 하는지 참 난감하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놀이를 하자고 하는데, 나는 도통 들어보지도 못한 놀이라 어리둥절해하기만 했더니 아이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엄마, 돌보미 선생님은 새로운 놀이도 많이 알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도 금방 알고 해주시는데, 왜 엄마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아들아이가 엄마보고 공부를 좀 하라고 한다. 동화책을 읽어도 혼이 난다.

“엄마 좀 더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돌보미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건 아이들에게 돌보미 선생님과 비교를 당해야 한다. 만약 다른 문제들 때문에 비교를 당한다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의기소침해질 텐데 참 이상하다. 아이들 육아문제로 당사자인 아이들에게 비교를 당해 보니 뭔가 모를 열심들이 내 속에서 마구마구 솟아나는



것 같다. 나름 육아에 자신도 있었고, 육아관련 서적도 읽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육아를 했었던 터라 아이들의 지적은 나름 자극제가 되었다. 그동안 일한다는 명분으로 느슨해졌던 육아를 아이들도 느꼈었나 보다. 예전만큼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최선을 다해 보리라 다짐해 본다.

감사하게도 돌보미 선생님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엄마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들의 습관이나 현재 상태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이라 엄마가 인지하기도 전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가고 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면 선생님과 짧은 면담을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듣기도 하고, 메시지나 사진을 통해서 면담을 하기도 한다.

막내는 아직 어려서 배우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낱말 카드를 통



해서, 동화책 구연을 통해서 잘 안 되는 발음을 교정해주기도 한다. 잘 안 되는 단어들은 메모해 두었다가 내게도 가르쳐 주면서 아이 교육할 때 사용하라고 주기도 한다. 또 보채거나 떼쓰기도 수준급인 막내딸을 어찌나 잘 구슬리기도 하고 단호하게 훈육해 주는지 엄마도 어려운 막내딸의 여러 문제들이 하나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저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둘째는 자립심도 강하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파이다. 그래서인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런 둘째 역시 그 아이 기질에 맞추어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주면서 내게 많은 코치를 해주기도 한다.

우리 가족은 가정폭력으로 쉼터를 지나 모자원에 입소하여 지내고 있다. 그런 특수성 때문인지 아이들 역시 다른 집과는 다른 것들이 있다. 그러나 돌보미 선생님은 그 특수성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엄마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주고, 때론 엄하게도 대해 준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이들인지라 1년도 넘게 심리치료를 받아오면서 좋아진 면도 많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거기다 세 아이 중에서 첫째가 장애가 있다 보니 나머지 두 아이들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마음의 짐 역시 다른 집과는 다른 점이다. 그래서 나는 더 엄하게 하는 면도 많지만, 반대로 단호하지 못한 면도 많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는 정답이 없어서 나는 늘 헛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돌보미 선생님과 상의도 하고, 조언도 들어가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돌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좋은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 육아 공백이 있는 몇 시간 동안 마음 편히 일을 하고 여가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시간에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일대일 교육과 보육, 심지어는 정서적인 부분들까지도 보탬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내년에는 쌍둥이 아들 둘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아마도 유치원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양육 공백이 생길 것이다. 솔직히 아직 껴보지 못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줄 돌보미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혼자 끙끙 앓고 해결 못해 힘들어 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함께 의논 상대가 되어주고, 공백을 메워주고, 또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돌보미 선생님이 계셔서 나는 든든함으로 내년을 기약하고 있다.

장려상

2017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육아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지친 어머니들께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믿고 맡겨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고, 내가 행복하면
내 아이도 행복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지개 우리집

인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_ 신영실

아름다운 인연

전남 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박지선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온 큰 선물입니다

전북 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왕연홍

내 삶의 등불이 되어준 아이돌봄

경기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김민주

경단녀 이야기

경북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_ 전정연

주연이의 든든한 수호천사

광주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조설아

장려상

무지개 우리집

인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_ 신영실

한없이 가볍지만 한없이 무거운 존재가 여기 내 품안에 있다.

그렇다. 둘째아이는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 우연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 첫 아이를 낳고 바로 둘째아이가 생겼다. 난임과 불임이 많은 이 시대에 분명 축복이었지만 실상은 이리했다.

둘째아이를 안고 온 우주를 담은 것 같은 경이로운 눈과 마주하고 있으면 이제 막 돌 지난 첫째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을 하고선 신발을 들고 내 바지춤을 붙잡고 있었다. 시끌벅적. 어떻게든 하루하루가 흘러가지만 매일 밤 아이들에게 맘껏 사랑해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라날 시기에 맞춰서 상호작용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 죄책감은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남편에게로 가서 항상 낯선 대화로 이어졌다. 그렇다. 솔직히 그때의 우리 가정

은 즐겁고 편안한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느 아이 하나 양껏 안아주지 못하고, 백일도 안 된 아이를 뽀뽀 싸매고 안고선 뒤통뒤통 거리는 첫째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야 했고, 갓 난 둘째아기를 위해 첫째아이는 날 좋은 봄날에도 집안에만 있어야 했으니까 말이다. 이렇듯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에 죄책감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우연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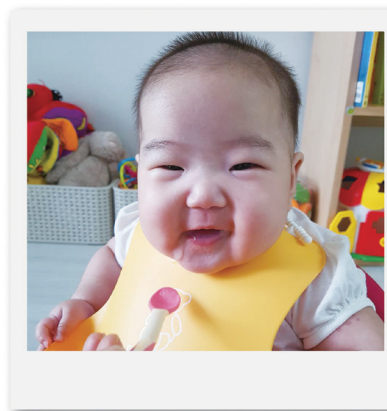
고민할 필요도 없이 지원 자격을 알아보고 바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이돌봄지원센터로 연락을 하였다. 센터에서는 친절히 상담을 해주고 바로 다음날부터 돌보미 선생님과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난 아직도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다.

둘째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첫째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며 진땀을 빼고 있을 때에 방문한 돌보미 선생님은 인사를 나누자마자 "아가 이리 줘요. 내가 안아줄게요."라고 말씀하셨다. 혹시나 처음 보는 사람이라 울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아기를 건넸는데 아이를 능숙하게 보듬어 안아주시며, "안녕, 우리 하윤이. 반가워요."라며 눈인사를 해주자 마치 영화같이 둘째아이가 얼굴을 돌보미 선생님 품에 비비더니 소리를 내며 웃는 게 아닌가!

나는 바로 '아, 이분이구나.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하게도 바로 다음 날부터 함께 아이들을 돌보아주기로 하였다.

선생님은 항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였다. "선생님, 일찍 일어나셔야 해서 힘드시지 않으세요?"라고 여쭙보면, 항상 "나는 하윤이를 보고 안으면서 더 에너지를 얻어요."라고 웃으며 말씀

하신다. 장담할 수 있다. 그 날로부터 우리 가정은 천에 물감물이 들 듯이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마음 놓고 둘째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자 제일 먼저 나는 첫째아이를 양껏 안아줄 수 있었다. 이제 막 돌 지난 첫째아이와 함께 눈을 마주치며 상호작용하고 안전하게 바깥놀이를 하는 동안 갓 백일 지난 둘째아이는 돌보미 선생님의 제대로 된 케어를 받을 수 있었다. 항상 우유만 주고 모빌만 보던 둘째는 돌보미 선생님께서 집안 온도, 습도 조절부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눈을 마주치며 우유를 먹여주고, 잠이 들 때에는 자장가를 불러 안정되게 깊이 재워주고, 깨어 있을 때에는 방안 곳곳 돌아다니며 자상한 설명과 함께 집안 구경도 시켜주고, 제대로 활용도 못한 딸랑이를 가지고 놀 때마다 소독해주며 둘째아이를 위해 주었다. 아이가 조금 크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유모차로 아기띠로 항상 데리고 나가서 풀냄새, 흙냄새, 나무사이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살랑거리는 한들 바람 등 자연풍경을 구경하도록 해주었다. 더운 여름날에도



꼭 안아주며 심장 소릴 듣고 잠이 들 수 있게 해주었기에 자연스럽게 둘째아이는 돌보미 선생님과 애착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돌보미 선생님이 오면 엄마인 나한테보다 더 밝게 웃어주며 반기는 둘째아이다.

선생님은 자녀양육의 부담만 덜어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변하게 해주었다. 바로 엄마인 나 자신이 가장 많이 변하게 되었다. 우선, 어느 하나 기밀 곳 없이 아이들의 시시콜콜한 애기조차 대화할 상대도 없이 외롭게 있었던 나는 대화할 상대가 생겼다. 대답도 없는 아이들에게 하는 혼잣말이 아니라 나보다 육아경험이 훨씬 많고 사회어른인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코칭을 해주었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책이나 매체를 통해 알지만 막상 접하게 되면 다 당황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천천히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시기적절한 놀이들과 노래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었다. 내가 “우와, 선생님 대단해요. 어떻게 다 알



장려상

아름다운 인연

전남 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박지선

고 계세요?”라고 물으면 겸손하게 웃으면서 “아이돌보미도 정기적으로 교육받는데, 거기서 배운 거예요.”라고 하신다.

둘째로 내가 변하면서 우리 가정도 변하게 되었다.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육아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게 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됨에 따라 남편에 대해 이해하고 부부관계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도 엄마가 처음이지만, 내 남편도 아빠라는 것이, 가장이라는 것이 처음이지 않는가? 선생님 조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다보니 서로에게 낯선 대화가 아닌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배려해주고 보듬어주는 부부가 되었다. 이렇듯 아이돌보미 선생님 한 분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 가정은 많은 것이 변화되고 맞춰지게 되었다. 마치 색깔이 얼마 없이 가늘게 보이던 무지개가 비로소 완전한 일곱 빛깔을 갖추게 되어 완성된 느낌이다.

나는 현재도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18개월 첫째아이와 8개월 둘째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시기적절한 최적의 최고의 서비스인 것 같다.

우리 집을 환한 무지개빛깔로 만들어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13년 겨울, 지금의 돌보미 선생님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작은 관사에서 아이 둘, 그리고 그 아이 둘을 키우는 칠순의 친정엄마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는 이 표현이 가슴 아프지만 현실이었다. 보통 교사라고 하면 다른 직업에 비해 안정적이며 편안한 생활을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나를 둘러싼 현실을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항상 비껴갔다. 남편은 2~3주에 한 번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만 쉴 수 있는 열악한 대안 학교의 교사였다. 겨우 교통비와 식비 정도만 받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와 아이의 양육은 오롯이 내 문제였다. 집 장만이냐 전세 자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던 나는 관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형편이 어려운 딸을 위해 친정엄마는 고령의 나이에도 낯선 영광으로 오셔서 두 아이를 돌보아 주셨다. 몸이 불편한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아침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 무거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동생의 몸이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친정엄마는 동생을 돌봐야 했고 나는 동그마니 아이들과 남겨졌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했다. 늑둑해 곰팡이가 피는 관사에서 두 아이를 돌보며 고생하는 엄마에게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걱정하는 엄마에게 당차게 말했다. 잘 할 수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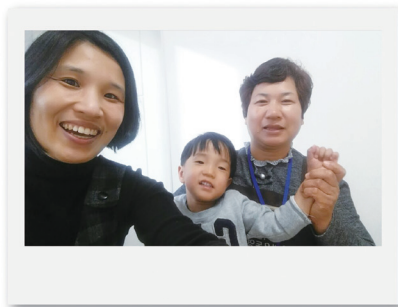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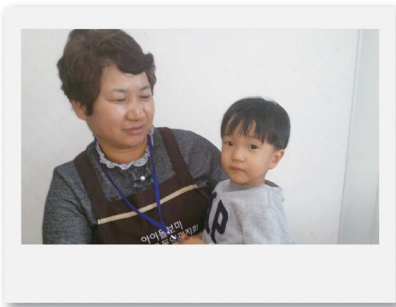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읍사무소로 향했다. 혹시 민을 만난 분을 소개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에서 말이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으니 신청해 보라는 것이었다. 나에겐 한 줄기 빛이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정부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돌보미 선생님에게 친정엄마는 연신 당부하셨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밤새 안고 있는 딸이 왼쪽 손목을 잘 쓰지 못한다고 하면서 두 아이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녹음기처럼 되풀이 하셨다. 친정엄마에겐 내가 낳은 두 아들뿐 아니라 나 또한 아기였던 것이다. 그러니 발 길이 쉽게 떨어졌을 리 만무하다. 그 마음이 이제 와서 더 사무치니 나도 어엿한 어머니인가보다.

첫째아이는 유치원에 둘째아이는 돌보미 선생님이 맡기로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이며 아이 이유식을 만들고 세 살 먹은 큰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는데 돌보미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잠든 아이를 맡

기고 출근한 첫 날 하루 종일 마음은 관사에 머물러 있었다. 퇴근 후 만난 아이는 너무나 편안해 보였다. 그제서야 잔뜩 긴장해 하루를 보낸 내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둘째아이는 아토피가 심해서인지 바닥에 누워 자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안아서 재우거나 어깨에 걸쳐주어야만 잠이 들었는데, 친정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힘든데 마다하지 않고 아이를 안아 재우고 계셨다. 아이를 키우는 일 또한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이가 기어 다니고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놀이를 병행하고 산책이며 목욕까지 내가 해줄 수 없어 늘 마음 한 편이 무거웠던 일들을 자연스레 해주셨다. 아이의 눈빛으로 인해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나의 신뢰는 더 깊고 높이 쌓였을지도 모른다. 매일 아침 돌보미 선생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도 인기척 소리도 아이는 느끼게 되었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





시는 순간에는 눈빛마저도 행복해 보였다.

등에 아토피가 심해 누워 있지 못하는 아이를 늘상 안고 있다 보니 팔목을 거의 쓸 수 없을 정도의 건초염이 왔다. 어느 드라마에서처럼 늘어진 티셔츠에 팔목 아대를 하고 한 손으로 음식이며 청소를 할 때였다. 돌보미 선생님은 손목이 더 상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며 항상 걱정해 주었고, 아이를 항상 안고 계셔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다. 정성스럽게 키워준 덕분에 아토피는 차츰 호전되었다.

어느 날 아이가 무척 아팠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심지어는 해열제까지 모두 토해 버렸다. 깊은 밤 겨우 세 살 밖에 되지 않는 큰 아이에게 손전등을 쥐어 주고 아이를 안은 채 어두컴컴한 골목을 지나 겨우 차에 올랐다. 그 때의 기억이 왜 이리 생생한지, 되뇌는 지금도 어두컴컴한 골목과 불안한 나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하다. 새벽까지 링거에 의지해 열과 싸운 아이도, 자신만큼 큰 기저귀 가방을 잃어버릴까봐 꼭 안고 엄마 옆에서 동생을 지켜 주던 아이도 모두 지쳐 갈때쯤 아침 일찍 돌보미 선생님이 병원으로 달려오셨다. 안고 있는 팔이 떨리어 올 때 나타난 돌보미 선생님을 보자 왈각 눈물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다. 친정엄마가 떠난 후 죽을 힘을 다해 울지 않았던 나였는데... 좀 더 일

찍 전화하지 그랬냐는 말씀과 함께 아이를 받아 안으며 잠든 큰 아이까지 살피주었다. 출근이 늦으면 안 된다며 아이를 입원시키고 필요한 물건을 챙기시는 일까지 모두 혼자 해결해 주었다.

아이가 아파 입원을 해도 새벽에 잠들어 있을 남편이 수십 킬로를 달려오는 것이 힘들까봐 전화하지 않는 나의 성격을 알게 된 돌보미 선생님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이의 상태를 묻는 문자를 남겨 주었다. 언제든 내가 전화할 수 있게 말이다. 작은 배려 같지만 나에

게는 그 어떤 도움보다 그 문자에 담긴 진심,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는 그 섬세함과 따뜻함이 가슴에 와 닿았다.

둘째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잘 자라고 있을 때쯤 계획하지 않은 셋째를 임신하게 됐다. 내 상황에 셋째라니, 피식 헛웃음 속에 가슴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듯한 한숨이 뒤섞였다. 힘들어하는 나에게



돌보미 선생님은 진심어린 축하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키워주시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두려움이 기대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임신 중에도 꼼꼼히 살피주시며 둘째뿐만 아니라 나 또한 보살핌을 받은 듯하다.

셋째 출산을 2주 정도 앞두고 둘째아이가 이마에 큰 상처가 났다. 시골 병원인지라 아이의 상처를 꿰맬 수 없어 광주까지 가야 했다. 돌보미 선생님은 흔쾌히 함께 가 주었다. 여러 성형외과를 돌아다녔지만

바쁜 시술 와중에 아이의 이마를 치료해 줄 의사는 없었다. 한 겨울 만삭에 둘째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속상한 마음에 화까지 더 해졌다. 돈이 되지 않지만 아이의 얼굴을 본다면 누군가는 해 줄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마음에 서러움까지, 네 번째 병원마저 수술이 밀렸 다며 거부하자 돌보미 선생님은 나와 아이를 어느 건물 안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주변 병원을 몇 군데 더 돌아다니셨다. 결국 아이는 대학병원까지 가야만 했다. 이마에 찢어진 상처를 피 땀 때도 만삭인 나를 위해 아이를 잡아 주었고 아파하는 아이를 달래며 함께 눈물도 흘리셨다. 셋째를 출산한 후 돌보미 선생님은 여전히 아이를 돌봐 주신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고 이제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든든한 친구로 곁에 머물러 계신다. 2013년 겨울 처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2017년 겨울 여전히 아름다운 진행형이다.

장려상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온 큰 선물입니다

전북 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왕연홍

니하오~ 안녕하세요?

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지 6년차인 결혼이민자이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은 중국말도 잘하지 못했고 서로의 문화도 다르기에 남편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망설였었다. 그렇지만 남편의 성실한 모습과 진실한 마음이 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게 하였고, 부모님도 안 계신 남편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 그땐 친정엄마의 반대도 걱정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 할 것 같았다.

한국 온 지 3개월 후 임신을 했다.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엄마가 된다는 기대감에 행복했다. 하지만 입덧으로 정말 힘이 들었다. 중국에 계신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 엄마가 해주신 음식

이 생각나고 고향에서 먹던 음식들이 더욱 먹고 싶었다. 한국말을 잘 몰라서 친구도 없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음을 나눌 곳도 없었다. 힘들었지만 나를 배려해주는 남편을 의지하고 그런 남편이 많이 고마웠다. 사랑하는 남편과 남편을 꼭 닮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출산 후 아이를 데리고 3시간 거리를 버스를 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실을 다녔다. 한 손에는 아이의 기저귀, 분유, 이유식 가방을 또 한 손에는 한국어 책을 들고 어깨에는 아기띠로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환승하며 정말 힘들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품안의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더 노력했다. 그 결과 토픽 4급(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였다.



꼬물꼬물 거리던 아이도 어느덧 네 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오면서 가족과 함께하며 잠시 미뤄두었던 나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하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이였다. 직장생활을 하면 분명 야근과 출장 등이 있을 텐데,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돌봐 줄 그 누구도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섣뚱 취업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면사무소 앞에 걸려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현수막을 보았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현수막에 있는 연락처를

보고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아이돌봄서비스 담당선생님은 친절하게 응대해주었고 말도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바쁜 와중에도 외국인인 나를 배려해 주는 모습이 너무도 감사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하고 보수교육도 받는 분들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요금도 개인이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지원도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없는 제도이기에 너무나 새로웠다. 그때부터 마음 놓고 나의 꿈



이었던 취업 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고, 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로 취업하게 되었다.

돌봄 신청을 하고 아이를 부탁드릴 생각을 하니 아이의 안전이 걱정이 되어 CCTV를 설치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CCTV가 있든 없든 잘해주면 아이의 얼굴에서 티가 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돌보미 선생님을 일단 믿어보기로 했다.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 후 집에 와보니 문 밖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선생님은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계셨다. 재미있는 동물 소리와 표정으로 아이가 깔깔대며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지 못했다.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한국어 발음을 아이가 따라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부족하기만 한 엄마의 한국어 발음이 오히려 해

장려상

내 삶의 등불이 되어준
아이돌봄

경기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김민주

가 될까 무거운 짐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그런데 아이에 대한 미안함은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던 짐도 다 사라진 듯했다.

돌보미 선생님은 항상 10분 일찍 와 주신다. 기다리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배가 고픈 아이한테 밥도 주고, 샤워도 시켜주고, 같이 놀아준다. 혼자 있을 아이가 걱정이 되어 돌봄 신청을 하였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아이와 교감을 해주고 있다. 바쁜 직장생활로 생긴 엄마의 빈자리를 돌보미 선생님은 빈틈없이 완전하게 채워주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도 아이의 교육 방법,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준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초보엄마에게 자녀교육은 어렵기만 하다. 몰라서 아이에게 못해주니 미안함이 배가 되기도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내게 돌보미 선생님은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준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마음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이로 자라고 있고 앞으로 그릴 것이라고 말이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따뜻한 위로이다.

부모라는 역할이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제도와 주위의 좋은 사람들로 인해 훨씬 즐거워졌다.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나는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내 꿈에 계속 도전하고 있고 한국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다.

“돌봄 담당선생님 및 아이돌보미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짬뽕 같은 무더위가 엇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오는 11월의 초겨울이다. 나는 9년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그 덕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이다. 건강하게 자라준 두 아들, 틈틈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고마운 남편 덕에 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내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다.

2009년, 대학교 졸업을 1년 앞두고 어린나이에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꿈 많던 여대생은 가슴 한 편에 그 꿈을 고이 접어놓고 오직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마음먹었다. 친정은 차로 4시간 거리이고, 시부모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양쪽 부모님 어느 분께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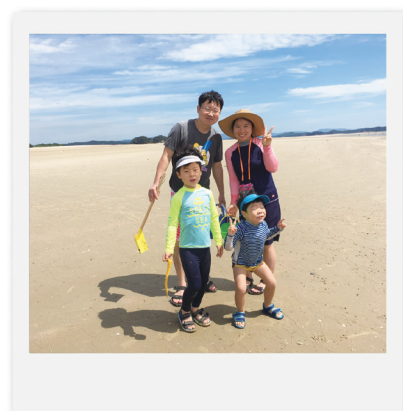
생각했던 육아와는 달리 어린나이에 출산을 했던 탓일까 아기를 등에 업고 혼자 먹는 밥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었고 친정엄마가 그리워우는 날이 많았다. 이십대 예쁜 여대생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육아에 지쳐 찌든 내 자신이 초라해 거울도 보기 싫었다. 친구들은 졸업해서 취직도 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뭔지 모르게 초조함과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내 일을 시작하고 싶다. 하루 24시간 아이만 보니 삶이 지치고 힘들다.’며 혼자 생각하던 중 아파트 게시판에서 우연히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전단지를 보게 되었다.

‘바로 이거다! 딱 3시간만 아이를 맡기고 과외를 해 볼까’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으로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심사를 거쳐 유형이 정해진 후, 처음으로 집에 선생님이 오시는 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인사를 했다. 선생님은 친정엄마처럼 푸근한 얼굴로 “아기 키우면서 과외도 하고 대견하다.”며 나를 칭찬해 주고, 젊을 때 일찍 아기 키우면 나중에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라며 위로를 해주었다. 칭찬은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난 돌보미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며, 우울했던 내 얼굴은 그날부터 밝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작은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생님은 거실에서 아기에겐 노래도 불러주고 동화책도 읽어주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초보엄마인 나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잘 놀아 주셨다.

봄에는 산책을 가서 예쁜 꽃반지를 만들어 끼고 돌아오고, 여름이면 시원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며 더위를 피하고, 가을에는 현충탑



에 올라가 곱게 물든 단풍잎을 주워오고, 겨울에는 눈사람 만들어 아이가 행복해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그렇게 우리 집과 돌보미 선생님의 인연은 1년, 2년, 9년이란 세월이 쌓여갔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내 일을 찾을 수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랐다.

아이가 열이 나면 나보다 더 부지런히 수건에 물을 적서 닦아주고, 넘어져서 멍이 들면 더 마음아파 하며 어루만져 주신다. 아이도 자기의 욕구를 즉각 들어주는 돌보미 선생님을 믿으면서 선생님 오는 시간을 기다린다. 그런 돌보미 선생님은 육아를 넘어 내 삶의 멘토가 되어 버렸다.

처음 선생님을 만날 때 백일이었던 아기가 지금은 벌써 아홉 살이 되어 학급 우유당번으로 즐겁게 학

교생활을 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다섯 살이 되어 나무노래를 예쁘게 부르고 있다.

나 역시 부담스럽지 않은 이용 가격과 흠잡을 것 없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만족하며 여전히 장기 이용자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 9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몇 분의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모두 전문교육을 받고 오신 선생님이라 각자의 장점으로 잘 돌봐 주셨다. 지금의 선생님하고는 2년째 인연을 맺고 있다. 작은아이를 진심으로 돌봐주고 예뻐하면서 아이에게 해피 바이러스라며 밝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감사하고 기쁘다.

돌보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신 덕분에, 나는 과외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 지금은 어엿한 내 이름으로 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나이에 육아에 지쳐 꿈을 포기했던 내게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정성과 사랑을 다해 아이들을 돌봐주신 돌보미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나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멋진 워킹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기간 정들었던 내 삶의 멘토 ‘코끼리 선생님’은 제천으로 이사를 가셨지만, 틈틈이 소식을 전해주고 아이들 안부를 물어오는 보고 싶은 선생님이다. 오늘도 작은아이와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 놀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가신 섬세하신 우리 선생님들... 이 세 분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사랑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꽃보다도 향기롭고 영롱한 별빛보다도 더욱 찬란하게 빛나니까요.’라는 박현희 시인의 〈당신은 내 삶의 등불입니다〉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 더불어 우리 가정을 꽃

보다 향기롭게 만들어주신 돌보미 선생님들의 인자한 얼굴이 함께 떠오른다.

끝으로, 육아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지친 어머니들께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믿고 아이를 맡겨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고, 내가 행복하면 내 아이도 행복해진다고 알려주고 싶다.

나 역시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주신 용기와 격려,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사랑과 정성 잊지 않고 다른 분들께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고 약속하며 글을 마친다.

장려상

경단녀 이야기

경북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_ 전정연

경단녀. 나는 경단녀다. 즉, 경력단절여성이다.

2010년 첫 아이를 출산하고 엄마로 불린지 6년째, 어느새 그렇게 6년이 넘어가도록 나는 흔히들 말하는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가 되었다. 첫 아이를 낳고 두 번의 유산을 겪으며 어렵게 둘째아이까지 출산한 나는 일보다는 가정과 아이들이 무엇보다 소중했고 살림과 육아에 온 힘을 쏟았다. 그 시간은 오롯이 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를 허전함과 아쉬움이 드는 건 왜일까?

몇 년을 그렇게 집에만 있다보니 어느 날, 법원에서 행정처분서라는 것이 집으로 날아왔다. 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에 관한 행정 처분이란 다. 간호사는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을 받아야 간호사 면허가 유지된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며 오랜 기간 까맣게 잊고 살았더니 결국 이런 것까지 받게 됐다. 내 아까운 면허증. 도서관에 살다시피 해서 합격한 내 면허를 왜 정지 처분을 한단 말인가. 덜컥 겁이 났다. 부랴부랴 협회에 전화를 하고 아직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언제가 될지 모를 그때까지 유예 신청을 했다.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또 1년쯤 지났을까, 옛 동료였던 선배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다.

“일 해보지 않을래? 시간도 좋고 딱 인테 한번 해봐.”

나를 솔깃하게 만들었으나 나는 흔쾌히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 볼게요. 하고 싶긴 한데 애들 때문이에요. 내년에 학교도 가야 되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애들 봐 줄 사람이 없어요.”

2016년 11월. 큰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 둘째는 이제 겨우 세 살. 어렵게 가진 아이라 그런지 형아보다 늦되고 더 어리게만 느껴지는 막내다. 항상 신경 써 줘서 고마운 선배에게 매번 이런 제안을 거절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일이 너무 하고 싶다.

감기 든 아이 손을 잡고 병원에 가면 그 때마다 아이는 내게 묻곤 한다.

“엄마도 간호사라 그랬지요? 근데 엄마 진짜 간호사 맞아요? 아빠가 엄마 주사도 잘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래. 엄마도 간호사야. 나도 간호사야. 유니폼 입고 바쁘게 뛰어다니던 엄마도 간호사야.’

생각이 많아졌다. 일하고 싶다. 너무 일이 하고 싶다.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나의 정체성,



자존감, 대학 졸업 후 출산 전까지 여러 해 동안 쌓아온 나의 커리어를 되찾고 싶다. 내 스스로 당당하고 내 아이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러나 한 가지, 아이들이 마음에 걸린다.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큰 아들은 곧 겨울방학이 사립 유치원보다 며칠이나 길고 내년에는 학교도 가야 하고, 학기 초에는 바짝 신경도 써줘야 한다.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도 아이들만 생각하면 그냥 스톱이 된다. 한 며칠 끔찍대는 걸 보고는 신랑도 응원을 해준다. 당신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든든하게 말해주는 신랑이 고맙지만 신랑도 같은 마음이다. 아이들이 걱정인 거다. 과연 나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보다가 아이돌봄서비스가 생각이 났다. 뉴스

에서 본 것 같기도 해서 알아보는데 이것도 걱정이다. 과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엄습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다.

2016년 12월, 나는 첫 출근을 했다. 적응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시간은 잘도 간다. 중순이 지나고 드디어 병설 유치원의 긴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첫날 아침, 나는 아이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처음으로 엄마 없이 집에서 혼자 있는 아이를 짧지 않은 몇 시간 동안 낯선 사람에게 맡긴다는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말해 놓았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엄마 번호 알지? 엄마가 혹시나 전화 안 받으면 아빠한테 전화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냉장고에 간식 있으니까 꺼내 먹고 뭐 해달라고 떼쓰지 말고, 알았지?”

이러려고 일부러 없던 집 전화도 들여 놓았다.

아침 일찍 돌보미 선생님이 오셨다. 잘 부탁드린다고 연신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다. 인상이 너무 좋으셨지만 종일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별일이 없으니 전화가 없는 거겠지 안도하면서도 애꿎은 전화기만 들었다 놔다 하다 퇴근 시간이 돼서는 쏠살같이 집으로 갔다. 돌보미 선생님께서 내 마음을 아셨는지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뭘 먹었는지 먼저 얘기해 주었다. 선생님이 가신 후 아이에게 물었다.

“엄마 없으니 오늘 어땠어? 뭐하고 놀았어? 엄마 안보고 싶었어?”

“숨바꼭질도 하고 종이접기도 하고 선생님 너무 좋아요. 착하신 거 같아요.”

엄마 마음과는 달리 아이는 신나서 얘기한다. 그제야 나는 마음이

장려상

주연이의 든든한 수호천사

광주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조설아

놓였다. 이렇게 잘 있는데 나 혼자 지나치게 걱정을 했던 모양이다. 그 이후로 나는 마음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몇 분의 선생님을 만났지만 다들 아이와 재밌는 시간을 보내 주었고 잘 봐 주셨다. 정말이지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나는 일을 시작했고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을 잘 보내고 있고, 네 살이 된 작은아이도 형아따라 부지런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비록 시간제 일을 하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정단녀가 아니다. 내 이름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고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나는 지금 내시경실에 소속된 어엿한 간호사로서의 생활을 즐기며 일하고 있다. 큰아이는 더 이상 엄마는 간호사가 맞느냐고 묻지 않고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리 엄마 간호사야. 우리 엄마, 간호사예요!”

나는 몇 벌의 새 옷이 생겼고 전보다 거울도 더 자주 보며 때때로 공부도 하고 미뤄뒀던 보수교육도 듣고 있다. 나는 지금 나를 찾아가는 중이다. 과연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제도가 없었더라면 내가 언감생심 일을 다시 하겠다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여전히 살림과 육아에 매진하며 잃어버린 나를 그리워하고만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화장을 하고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한다. 분주한 매일 아침도, 아이들을 재촉하는 나도, 어느새 추워진 늦가을 공기도 익숙해졌다.

파이팅! 차가운 아침 공기 크게 한숨 들이켜고 나는 오늘도 출근을 한다. 심호흡 한 번에 발걸음이 가볍다.

띠 띠 띠 띠.

드디어 퇴근. 아기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한걸음에 달려왔다. 현관문을 열면 주연이는 번호키 누르는 소리만 듣고도 엄마가 오는 것을 아는지 벌써 나를 향해 뺨싸게 기어오고 있다.

“주연아, 잘 있었어?”

주연이가 환하게 웃는다. 돌보미 선생님과 재밌게 놀고 있었던 주연이의 표정은 늘 밝다.

아기가 9개월 무렵이 되었을 때 복직하기로 마음먹은 나는 아기를 낳기 전부터 복직 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했다. 친정이나 시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난감한 상황이었다.

아기를 낳은 후 초보엄마로 정신없이 지내는 가운데 복직이 백일 정도 남았을 땐 어린이집에 맡길지, 베이비시터를 구할지 갈팡질팡 마음을 못 정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고민만 하고 있었다. 정말 아기와 관련한 문제는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고민 끝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오전 2시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돌보미 선생님이 주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드디어 복직하기 약 3주 전, 아기를 어린이집에 적응을 시키기로 했다. 당시 8개월이 갓 지난 주현이는 어

린이집 간 첫날부터 울어대기 시작하
더니 사나흘이 지나도 우는 것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갈 뿐이었다.
보통 아기들이 일주일 이내로 적
응하고 길면 한 달까지도 적응기
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엄마인 나
의 느낌에 주현이는 사흘이 지나도
조금도 적응하는 기미가 안 보였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었지만
아기가 적응하지 않는 것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등원
5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아기가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 때까지 아기가 단 한 번도 크게 아픈 적이 없었던 지라
나는 많이 당황했다. 고열에 시달리는 아기를 밤새 간호하며 아직 어
린이집에 가는 것은 주현이에게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복직이 2주 정도 남은 시점이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기로 결정한

후 광주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
야기하고 시간제 서비스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센터에서는 종
일제에 관련하여 안내해주고 며칠 후 종일제 선생님을 연계해주었다.
사실 난 시간제 서비스를 취소하겠다고 하면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
다.” 하고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종일제 서
비스를 권유해주니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승낙했다. 센터에
서는 돌보미 선생님이 아주 좋은 분이라며 한번 믿어보라고 했지만,
나는 다른 베이비시터 면접 일정도 동시에 잡았다. 왜냐하면 아기가
어떤 분과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몰라 일단 많이 만나보고 결정을 내
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당시 주현이는 낮가림이 심한 상태였다. 주현이가 과연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돌보미 선생님과 드
디어 만날 수 있는 월요일이 되었고, 선생님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인
사를 하였다. 그리고 손을 씻고 오시겠다며 바로 욕실로 들어갔다. 선
생님이 손을 씻고 나왔지만 주현이는 역시 경계를 풀지 않고 엄마 품
안에만 꼭 붙어 있었다.

돌보미 선생님은 절대 성급해하지 않았다. 주현이가 낯설어하고 칭
얼대자 “알았어, 선생님이 안 볼게.” 하면서 얼굴을 가리는 시늉을 하
였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주현이가 한 공간에 있는 선생님을 쳐다보
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주현이 손을 조금 만지고 주현이가 빼내면 다
시 물러섰다가 발을 조금 만지고 이런 식으로 주현이의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난 지 30분 만에 주현이를 품에 안았고 주현이는
울지 않았다.

나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감히 기적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새삼 감탄했다. 당시 주연이는 외할머니를 꽤 자주 보았지만 그 무렵엔 외할머니 얼굴만 봐도 계속 울기만 했고, 손님들이 집에 오면 내 품에만 있는 아기였다. 하물며 처음 본 사람 품에 안기다니!

그리하여 나는 첫날부터 돌보미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걱정이 일시에 사라지니 복직이 두렵지 않았다. CCTV를 설치하기로 하였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CCTV가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베이비시터도 만나볼 필요가 당연히 없었다. 너무 좋은 분이었고 무엇보다도 주연이가 잘 따르기에 셋째 날부터는 서서히 외출을 늘려가면서 돌보미 선생님과 주연이가 더 친해질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무사히 복직하여 첫 출근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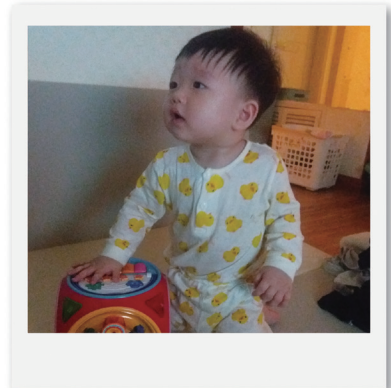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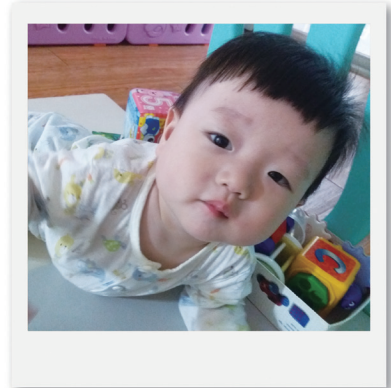
복직 후 며칠 동안은 업무를 보면서 자주 휴대폰을 보곤 했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이 연락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기에게 일이 생긴 적도 없으며, 출근할 때 안심하고 돌보미 선생님께 아기를 맡기고 있다. 아기 걱정을 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일을 하기 때문에 휴직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다.

돌보미 선생님께 더 감사한 부분은 육아 관련 정보를 주는 것이었다. 초보엄마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고 심지어 양육을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그동안 육아서적과 인터넷 정보를 기반 삼아 주연이를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책이나 인터넷 정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연이에게 맞는 육아 방식을 몰라 한참 헤매고 있을 무

렵 돌보미 선생님을 만났다.

그 무렵 주연이는 이유식을 잘 안 먹고 짜증을 곧 잘 내었다. 선생님은 내가 이유식 먹이는 모습을 보더니 월령에 맞지 않는 수저와 지나치게 조금씩 먹이고 오래 시간을 들여 아기를 지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었다. 선생님의 충고대로 수저도 바꾸고 적당한 시간 동안 적당한 양으로 먹이니 아기도 곧 잘 먹고 짜증을 내지 않았다. 덕분에 주연이는 이유식을 잘 먹는 아기가 되었다.

돌보미 선생님은 늘 고운 목소리로 주연이에게 책도 읽어주고 동요도 잘 불러준다. 주연이가 산책을 좋아하여 날씨가 좋을 땐 유모차를 태우고 자주 산책 나가는데 요즘엔 호기심이 왕성하여 새로운 풍경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생님은 주연이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때마다 채워주고, 항상 내게 주연이가 원하는 부분과 이 시



기에 해야 할 일,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주기 때문에 육아가 한결 수월 해졌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퇴근하지 않고 오늘 주연이의 행동, 변화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어서 저녁시간과 주말에 연속성 있게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정보를 준다.

내가 육아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식을 먼저 키운 엄마의 심정과 육아 지식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래서 나는 요즘 책을 보거나 인터넷 정보를 모으지 않는다. 예전에는 육아와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요즘엔 돌보미 선생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처음엔 우리가족 아닌 다른 분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 신경 쓰인다고 했던 남편도 선생님이 주연이를 잘 돌봐주고 덕분에 나도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니까 지금은 대만족을 하고 있다.

선생님은 항상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더 먼저 와주신다. 오자마자 웃는 얼굴로 주연이를 부르면 주연이는 활짝 웃는다. 내가 퇴근한 이후에도 선생님 품에만 안겨 있을 때가 종종 있다. 선생님은 늘 주연이에게 “예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안아줄 땐 그 포근한 사랑의 감정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흐뭇하기만 하다.

이제 돌이 갓 지난 주연이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곤지곤지 잼잼도 너무 잘 하고 나를 향해 “엄마!”하고 부른다. 아빠와 엄마가 출근할 때 빠이빠이도 잘 하는 주연이. 이제 거실과 방안을 재빠르게 기어 다니며 이것저것 만지고 공을 굴리며 웃고 노래가 나오면 어깨를 흔들거리며 리듬을 탄다. 주연이가 이만큼 건강하게 자란 것은 선생님의 공이 너무 크다.

김미정 선생님!

얼마 전 주연이 돌 선물이라며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주셨을 때 남편도 저도 많이 놀랐고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조퇴하고 주연이 예방접종 맞히러 갈 때 일부러 같이 가주셔서 어찌나 감사했는지요. 벌써부터 선생님과 헤어질 생각을 하면 섭섭할 정도입니다. 단순히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 이상으로 우리 주연이와 저는 그냥 이모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친근감을 느낍니다.

우리 가족과 소중한 따뜻한 인연 맺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둘째를 낳는다면 또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돌보미 선생님들이 더 늘어나서 육아 고민을 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남은 날들과 주연이, 앞으로 만날 모든 아기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밝고 행복한 기운을 많은 가정에 전달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아 이 돌 보 미 활 동 수 기

최우수상

72

빨간 단풍잎

인천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한미자

우수상

78

좌충우돌 돌봄이야기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_ 차영희

82

매일 아침 2시간: 끝돈타임

전남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김옥식

장려상

88

나의 고향은 평양입니다

강원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이희숙

92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이유

서울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_ 이영애

최우수상

2017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다가오는 가을에는 또 어떤 단풍잎 같은
예쁜 손을 잡을까 발그레한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으려 내게로 다가오겠지?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 본다.

빨간 단풍잎

인천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한미자

최우수상

빨간 단풍잎

인천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한미자



노란 은행잎과 빨간 단풍잎이 사뭇히 내려 앉은 늦은 가을에 산책 길을 걷다 문득 빨간 단풍잎 한 개를 주워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잠시 생각에 젖어본다. 꼭 어린아이의 손바닥 같은 곱디고운 빨간색의 단풍잎을 보며, 방긋이 미소가 입가에 맴돈다.

이 일을 시작한지 서너 달쯤 되었을 때에 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조금 힘드시지만 아이가 둘인데요, 다른 선생님들 어렵다 하시는데, 며칠만 도와주시겠어요?”

센터 선생님의 미안해하는 마음이 가득한 목소리에 흔쾌히 “네! 갈게요!”하고 ‘며칠이니까...’ 하며 신청자의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또 어떤 아이를 만날까 하는 호기심에 설레는 마음으로 ‘딩동!’ 하고 벨을 눌렀다. 잠시 후 아주 예쁘게 생긴 어머니가 문을 열어

주었다.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니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4살쯤 보이는 남자 아이가 뻘뻘 나를 쳐다보았다.

“안녕? 나는 돌보미 선생님이야. 오늘 너희들이랑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 왔단다. 우리 재미있게 놀자!”

나의 인사가 끝나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소개하며 “다른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세요. 오늘 고생 좀 해주세요.” 하시고는 일찍 문을 나섰다. 나는 미리 준비한 풍선을 불어 동그랗게 만들어서 놀이를 시작했다. 조금 거칠고, 소리는 질러도 재미있게 잘 놀았다. 질서도 잘 지키고, 내가 하는 말에 잘 따라주며 문제없이 지냈고 돌아오면서 ‘그동안 뭐가 문제였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안심했다.

다음날, 나는 다시 아이들을 보러갔다. 아이 어머니는 벌써 출근 뒤였다. ‘딩동’ 벨이 울리자 큰아이가 “선생님이죠?” 하며 문을 열어 주었다. 나는 “안녕? 잘 지냈지?” 하며 들어갔다. 그때 “아-악-으악!!”하며 작은아이가 소리치며 울면서 뛰어나왔다. “누나가 때려요” 나는 깜짝 놀라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작은아이를 안았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아이가 뭐라 하면서 내 품에 안겨서 울었다. 그때 문 쪽에서 큰아이가 커다란 자동차를 동생에게 던져버렸다. 다행히 머리에 맞지 않고 다리에 맞았지만 동생은 많이 아파했다. 나는 작은아이를 달래고, 큰아이에게 말했다.

“너보다 작고 어린 동생을 때리는 건 비겁한 행동이야.”

그러자 큰아이는 깜짝 놀랄 말을 쏟아놓았다.

“재는 내 동생이 아니에요! 원수예요! 엄마 아빠 사랑을 다 빼앗아간 나쁜 아이예요! 재는 때려도 돼요! 나를 슬프게 해요!”

큰아이는 동생을 발로차기 시작하면서 악을 썼다.

“충으로 빵! 썰어서 죽이고 싶어요! 재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동생만 좋아해요! 엄마도 아빠도 내 마음을 몰라요. 동생 없을 땐 나만 사랑했는데! 재가 태어나서 다 망쳐버렸어요!”

아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의 억울해하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왜, 이 조그만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결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달래줘야 할지 좋은 생각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울다 아이는 내게로 다가와 물었다.

“엄마한테 동생 때린 것 이를 거예요?”

“선생님이 어찌하면 좋겠니?”

“이르지 마세요.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선생님하고 약속 하나 해주겠니? 선생님이 너희 엄마가 ‘오늘 아이를 잘 돌봤어요?’ 하고 물으면 선생님은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것 너도 알지?”

“그럼, 약속할게요. 그런데 무슨 약속이에요?”

“동생 때리지 않기.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지 않고, 말로하기. 어때?”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알았어요.” 하고 대답했다.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엄지손가락으로 도장도 찍었다. 그리곤 내가 말했다.

“너는 동생을 무척 사랑하는구나. 동생을 미워하면 선생님이랑 약속하지 않았을 거야.”

방으로 들어가던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면서 “선생님 똑똑 하네요.” 하고 부끄러운 듯 문을 ‘콕’ 닫았다. 순간 나는 멍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왜 드는 걸까?

9시가 돼서야 아이들을 재우려 이불을 깔았다. 책을 읽어주려고 “책 가져올게.” 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아이가 내 손을 가져다 아



이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작고 예쁜 단풍잎같이 빨간 손으로 말이다. 그리곤 내게 물었다.

“선생님,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요?”

나는 조금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을 했다.

“그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네가 없으면 엄마는 살아갈 힘도 없을 거야. 너는 엄마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란다. 네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건 알고 있어?”

“네,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네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도 또 내일도 엄마는 너를 똑같이 사랑하신단다.”

아이는 두 눈을 꼭 감고 내 손을 꼭 잡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어른들은 모르는 무한하고 신비스런 세상에서 아이들은 사랑과 인생을 배우면서 살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아이들만의 세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하고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아이들의 세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은 아주 작은 어른이니까.

다가오는 가을에는 또 어떤 단풍잎 같은 예쁜 손을 잡을까? 발그레한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으려고 다가오겠지?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본다.

좌충우돌 돌봄이야기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_ 차영희

매일 아침 2시간 : 골든타임

전남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김옥식

우수상

좌충우돌 돌봄이야기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_ 차영희

내가 그 가족을 만난 것은 2014년 가을 어느 토요일이었다. 평일에 엄마 아빠가 모두 일을 나가다보니 큰아이는 학교 수업을 마친 후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고, 작은아이는 종일제 보육을 신청하여 어린이집에 있었다. 평일 내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도 양육을 하려니 힘겨웠던 아이들의 어머니는 토요일 하루라도 누군가가 양육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아침 9시, 처음으로 활동을 가서 큰아이를 본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혔다. 초등학교 4학년이나 되는 아이가 누워서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라면과 콜라를 먹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밥을 먹이고 있으세요?”

내가 묻자 아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했으나 선불리 물어 볼 수는 없어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어머니는 울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에게서 등을 돌려 남편과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했고, 겨우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하고 한숨을 돌리고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병원에서는 아이가 ADHD라고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의 이상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했다고 한다. 학원에 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기에 집으로 과외선생님을 불러들여서 가르치게 했는데, 과외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아이의 행동에 대한 충고를 할 때면 내 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기 위로를 하면서 선생님을 교체했다고 한다. 아이는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고, 걸핏하면 욕을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였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이라 스마트폰이 없으면 소리를 질러댔다. 학원이나 학교 심지어는 놀이터에 나가도 아무도 자신과 어울려주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동생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거나 주먹을 들어 때리기도 했다.

도저히 이렇게 두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는 아이의 모든 것이 엉망임을 알고는 있지만 공부 먼저 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아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

기에 외로움이 컸고, 외로움이 나쁜 습관으로 굳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공부는 못해도 됩니다. 잘못된 생활습관과 나쁜 행동을 고치면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아이 어머니는 내 말에 수긍을 했고, 비록 주말만이지만 잘 부탁한다고 하며 방식을 바꾸어보자고 했다.

겨울 방학 한 달간 아이와 나는 아침부터 함께하는 시간을 시작했다. 라면은 일주일에 딱 한 번, 탄산음료는 입에도 댈 수 없게 했다. 처음에는 욕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때리고 난리를 피웠다. 스마트폰과 멀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아이가 놀이터도 영화도 좋아하게 되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처음 듣는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욕을 들으면서까지 이 아이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주말에 외갓집을 다녀왔는데 할머니가 아이가 착해졌다며 좋아했다는 말을 어머니가 전해주었고, 또 과외선생님도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아! 그래도 내가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어느 날은 아이가 동생에게 욕을 하려다 입을 막고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너무나도 기뻐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원은 아이가 변하더라도 이미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어머니에게 이사를 가서 새로이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넌지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아이 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는지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를 해

운대로 이전하여 자리를 잡고 6개월 후 가족 모두가 이사를 했다.

구가 달라져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지만 나와는 이웃이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다. 아이 어머니는 내가 성당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종교에 관심이 생겨 신앙을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함께 성당에 다니게 되었다.

가끔 성당에서 또는 길에서 그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가족 모두가 밝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얼마 전에는 그 집 가족 모두와 함께 UN평화공원 국화축제를 보러 다녀오기도 했다.

“선생님, 예전에는 제가 아이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 많이 울었지요? 요즘은 아이가 학교생활을 정말 잘 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말 편하고 삶이 즐겁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이야기한다.

나는 앞으로도 그 집 가족이 지금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돌보미로 활동하며 마주했던 모든 가정들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오늘도 기원한다.

우수상

매일 아침 2시간: 골든타임

전남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김옥식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2012년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형제를 만났다. 어린이집 영아반에 처음 등원하던 날, 우리 나이로 3살 된 큰아이와 갓 돌을 넘긴 둘째아이를 양팔에 안고 홀로 어린이집 현관문을 들어서던 아빠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할 만큼 인상 깊었다. 눈이 유난히도 커서, 그 큰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보였던 큰아이는 교실을 마구 뛰어다니며 불안함을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소리를 질러댔고, 기저귀를 찬 둘째아이는 그런 형을 물끄러미 쳐다보다 결국 같이 소리 높여 우는 통에 품안에 안고 한참을 어르고 달래주어야 했다. 그리 길지 않았던 만남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 꽃이 피는 봄을 지나 낙엽이 지는 가을이 오고 순식간에 두 해가 지났다.

개인사정으로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2014년 아이돌보미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세상 참 좁다’라는 말처럼 우연히도 형제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을 나가게 되었다. 내게만 흐르는 세월이 아니었던 듯 형제는 5살, 4살의 어엿한 왕자님들로 성장해 있었다. 제법 어른스럽게 자란 아이들이 혹시 나를 잊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두 아이 모두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별다른 거부감 없이 가정으로 방문한 나를 잘 따라 주었다.

그렇게 두 아이들을 보살피는 돌봄 활동을 하며, 마음속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된 아빠에게서 아이들의 엄마가 가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평소 남들 앞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혼을 내고, 조그마한 일에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굽히지 않으려 하는 조금은 강압적인 모습들이 이해되었다.

“마트에 잠깐 갔다 왔더니 작은아이가 기저귀에 똥을 잔뜩 싸놓고 온 방을 기어 다니며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아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홀로 된 아빠의 두 아이에 대한 양육 고민은 아마 이때가 시작점이었을 것이다. 양육. 아이가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핌. 부모라면 누구나 아는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속해 있는지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다. 특히나 엄마가 없는 두 아이의 아빠에게 닥친 그야말로 현실. 어린이집 보내기, 식사 준비, 빨래, 청소, 철에 맞는 옷 입히기, 병원가기 등 두 아이를 챙겨야 하는 해야 할 수 없는 많은 일부터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우려고 노력하며 지내온 날들의 고민의 무게가 쌓인 한숨에서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사랑한다, 사랑해, 아들.” 하면서도 아이들의 조그마한 잘못에도 버럭 화를 내는 자신을 결코 고칠 수 없었던 그 말에,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일에 지친 몸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이해한다고 하니, 이제는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아이들도 저도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을 했다. 그날, 나는 아이돌보미로서 이렇게 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 나게 감사하기까지 했다.

아이들도 아빠도 조금씩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지던 시기, 조선업 경기침체가 연일 뉴스거리가 되던 2015년 조선업 관련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영암군 삼호지역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의 연이은 부도로 형제의 아빠가 다니는 회사 역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회사가 곧 문을 닫게 될 것 같다며 이곳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아빠의 얼굴이 유독 어두워 보였다.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하던 아빠에게서 긴 한숨이 터져 나오고 결국 오랫동안 고민했다며 말을 꺼내었다.

“선생님. 아무래도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야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



에 아른거려 도통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에 와서도 밤새 잠을 못 이루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다. 다음날 아빠를 만나 솔직한 마음을 말했다.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놓고 다리 뻗고 편히 잠잘 수 있겠냐고, 아이들 얼굴 보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열심히 살다보면 세상은 외면하지 않을 테니 용기를 내라고,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같이 힘을 내서 두 아이 잘 키워보자고 두서없지만 진심을 다해 마음을 전하였다. 말없이 그냥 듣기만 하던 아이들 아빠가 걱정스

러웠지만 당사자인 본인은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싶어 더 이상의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이틀이 지나고 아이들 아빠에게서 엿그제 선생님께 괜한 말을 해서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문자가 왔다. 한 문장 안에 숨겨진 수많은 고민과 마



음을 읽을 수 있었고 다른 말이 무슨 필요 있겠나 싶어 “다행이네요.” 한마디를 보냈다. 그리고 나니 내심 스스로 얼마나 마음을 즐기고 있었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하고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폭풍우 후에 더욱 단단한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요즘 두 형제는 아빠와 함께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큰아이는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어 씩씩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장난꾸러기 작은아이는 아

장려상

픈 곳 없이 아빠와 형의 껌딱지가 되어 귀엽게 커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더욱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 아빠와 아이들은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1박2일 부모자녀교육에도 참석하고 영암군드림스타트에서 주최하는 가족캠프에도 참여하며 멋진 가을을 보내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면, 나는 매일 아침 두 형제와 함께하는 ‘2시간’을 감히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고 싶다. 두 아이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그날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두 아이 인생의 골든타임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고향은 평양입니다

강원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이희숙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이유

서울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_ 이영애

장려상

나의 고향은 평양입니다

강원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_ 이희숙

나는 2010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7년 전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이미 50대 초반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식당 설거지나 허드렛일 밖에는 없었다.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은 일요일 오후 반나절이었지만 힘든 날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 도움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1차 합격 문자를 받았다. 면접 당일 긴장감으로 떨고 있는 나를 보고 하나센터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응원해 주었다.

“이희숙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저희는 믿고 있으니 스스로를 믿어 보세요.”

그 응원 덕분에 떨리던 마음도 약간은 진정이 되었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작정하였다. 그 마음이 통했던 걸까? 나는 평균 3:1의 경쟁을 뚫고 원주시 센터의 아이돌보미 선생님이로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다.

이후 열흘 간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려니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돌보미가 되면 북한에서 온 나 같은 엄마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작은 소망을 지니고 있었기에 80시간의 교육을 끝까지 이수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전문 돌보미 선생님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선생님’ 하면 글을 가르쳐주거나 병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평범한 아줌마에 지나지 않았던 나를 ‘돌보미 선생님’으로 센터 선생님들도 불러주시니 나도 선생님이 걸맞게 아이들을 잘 돌보아줘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교육을 마치고 센터에서 처음으로 연계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나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인지 북한에서 온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처음 본 다섯 살 남자아이는 나를 보고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난 할머니가 아니고 널 돌봐주는 선생님이야.” 하는데도 아이는 그냥 떼를 쓰면서 “아니야, 난 선생님은 싫어! 할머니가 더 좋아!” 하면서 나에게 할머니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하여 어머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니 어머니도 아이의 할머니가 되어 달라고 했다. 엄마 말고는 다른 가족이 없던 아이는 가족이 그리웠던 모양이다. 밖에 산책 나갔을 때 만난 또래친구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이는 “우리 할머니야!”라고 말하면서 나를 보고 씨익~ 웃었다. 그것을 보니 북한에 있는 손주들 생각에 그만 울컥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아이가 내 눈물을 보았나 보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를 다독이며 말했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면서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이라도 양육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만 더 일찍 아이돌보미 사업을 알았더라면 내 아이들도 더 세심하고 다정다감한 사랑을 주면서 키웠을 것이라는 때늦은 후회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나와 만나는 아이들과 나누려고 한다.

아이에게 쏟은 사랑은 내게 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 현



재는 두 명의 남자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활동을 나가는데 이 아이들 역시 딱딱한 느낌의 선생님보다는 친근하고 부드러운 할머니 같은 선생님이 좋은가 보다. 처음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는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는 내내 나보고 가라며 밀쳐내던 모습에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모른다. 그러던 아이들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쌓여가는 동안 선생님이지만 할머니 같은 사랑과 따뜻함을 계속해서 표현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내게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은 활동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전화를 받아보니 글썽 큰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엄마, 나 선생님이 좋아. 그리고 선생님 사랑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난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고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아이돌보미를 하겠다고 지원했던 내 자신의 선택이 너무 자랑스롭다. 그리고 다짐하게 된다. 아이들을 내 손주들을 돌보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아껴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활동을 나가겠다고 말이다.

장려상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이유

서울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_ 이영애

60대 중반이 된 나는 2008년부터 중랑구에서 신나고 행복하게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힘들었던 일도 많았다. 학교를 안가서 애먹이던 한부모 가족의 초등학교 2학년생 아이, 교실에 찾아가 담임선생님을 뵙고 아이와 아침에 통화해 달라고 부탁도 해야 했었다. 또 여섯 살밖에 안 되었는데도 아무 물건이나 잡고 순식간에 때리던 아이. 나중엔 “선생님, 안 때릴게요.” 하며 달라지던 모습이 선하다. 어떤 아이는 핸드폰을 부모가 차단하자 내 폰을 빌려달라며 떼를 쓰다 안 주니 욕하고 어른보다 더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기도 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몇 시간이고 악을 쓰며 울고, 하룻길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줍고 가겠더니 이렇게 툭 쏘아붙이기도 했다.

“선생님이나 잘해요.”

이 아이의 아빠는 자기 아들 때문에 위장병이 생겼다고도 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변한다. 인사하자고 유도했을 때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하겠어요?” 했던 아이가 달라져서 인사를 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까지 주우며 “선생님, 쓰레기 주웠어요.” 하고 사랑을 한다. 악을 쓰고 눈을 흘기던 아이가 달라지기까지는 돌보미의 끝없는 사랑과 기다림,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한 것 같다. 아이들의 변화는 이 일의 보람과 자부심, 그리고 행복으로 이어진다.

내게 큰 기쁨이 온 것은 2015년 10월 쌍둥이 아이들을 만나면서부터이다.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가 많다고 해서 좀 두렵긴 했지만 지내보니 큰 부담이 없었다. 아기들이 백일이 좀 지났는데 한 아이만 먼저 분유를 먹이니 두 아이 다 힘들어했다. 그래서 온몸과 양손을 다 써서 두 아이를 안고 어렵지만 동시에 분유를 먹였다. 그런데 아이들을



업어주다 보니 그만 허리가 고장이 나버렸다. 큰일이다 싶어 아이들과 타협을 하자 결심하고, 진심을 다해 눈을 맞추고 사정을 얘기했다.

“아기들아, 선생님이 허리가 아파서 못 업어주겠는데 어떡하지? 업어줄 수가 없는데 어떡해…….”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웅알이처럼 대답해주던 그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다. 얼마나 신통방통하고 고마웠던지... 그 후론 업어주지 않아도 되었다.

재울 때는 옛날 할머니같이 내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자장가를 들려주면 잘도 잔다. (나라님께 충신동아 부모님께 홍보동아...중략...하늘같이 드높아라. 바다같이 드넓거라...) 아이들이 걷지 못했을 때 한 아이가 아파 무릎 위에 놓고 감싸고 있는데 안 아픈 아이는 안아 달라 보채지도 않고 있어 안쓰럽기도 하였지만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 주는



모습에 아주 어린 아이지만 그 어른스러움에 대견하여 눈물이 나기도 했다. 아플 땐 열이 나는데 웬만하면 내 얼굴과 손을 찬물로 씻고 얼굴과 손으로 비비며 식히기를 반복하는데 그러다보면 보채던 아이가 내 배 위에서 잠들기도 한다. 이 아이들이 걷지 못할 때는 앉아서 인사를 가르쳤는데 머리가 땅에 닿더니, 서서 뛰어다니는데도 서서 엉덩이를 들고 머리를 땅에 대고 인사를 한다. 나한테만 그런다. 다른 어른한테는 빠이빠이만 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나와도 작별을 했는데, 자주 아파서 병원에 몇 번이고 입원을 하게 되어 결국 지난 5월부터 다시 돌보게 되었다. 업어주지는 못하지만 달리기, 몸 씨름하기, 방아놀이, 팽이치기 등 어떤 놀이를 하건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자지러지게 웃어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 아기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일을 대처하며 마음껏 웃음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아기들과 만날 수 있는 끈이 되어준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과 오래오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한다.

2017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발행일 2017년 12월 12일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획 및 편집 사업지원본부 돌봄지원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조달청 5층
전화 02_3479_7600
팩스 02_3479_7788
홈페이지 www.kihf.or.kr

디자인 반가운디자인
그림 박경주
인쇄 경성문화사

2017_KIHF_041

-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2017 아이돌봄서비스 수기집

내 생애 최고의 선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5층
Tel 02)3479-7600 Fax 02)3479-7788